

노년생활 교육
고창노인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은 7월 21일 복지관에서 '노인과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주제로 노인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 했다. 어르신들은 노년의 성, 의사소통,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행복한 노년생활' 교육도 참관했다.

복지관은 부대행사로 고창보건소·정신보건센터 연계를 통한 '노인건강생활실천캠페인'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에게 영양, 절주, 금연, 정신건강, 구강 및 만성질환 등의 다양한 정보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도완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창지역 어르신들이 삶의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열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250인 금강경
수기대법회

1250인 금강경 수기대법회가 7월 16일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봉행됐다.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 이날 일제 법회에서 통공 스님(칠불암 회주)은 입제법문에 앞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참된 불자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용맹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한글 금강경으로 진행되는 이번 법회를 마칠 때쯤이면 부처님의 맑고 청정함을 본받아 모두가 성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범어사는 7월 30일~9월 10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무비 스님(前 동국역경원장), 용학 스님(범어사승가대학 학장), 설우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묘허 스님(단양 방곡사 회주), 흥선 스님(전 중앙승가대학원 초대 대학원장), 지환 스님(동화사 기본선원장), 상현 스님(범어사승가대학 학장)등의 금강경 강좌가 이어진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송전탑 건설로 수행환경 위협

남원 승려사 뒷산 설치 예정... 진정 위한 서명운동 시작



송전탑이 설치될 승려사 뒷산. 수행공간과 불과 200m 떨어져 있다.

전라북도에서 원주 위봉사와 더불어 2곳 뿐인 비구니 스님들의 참선 수행도량인 남원 승려사(주지 경환) 뒷산으로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수행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전주사업소에서 발주한 송전 계획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 이백면 송정소에서 전북 장수군에 이

르는 30km 구간에 15만 4000볼트 고압선을 설치하는 송전탑 건설 사업이 승려사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송전로가 개설될 예정인 구간에는 승려사 뿐만 아니라 귀정사가 있는데, 이 두 사찰 인근 300m정도 떨어진 곳에 송전선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문화재 보호법'

과 '전통사찰 보전법' 등 관련 법규 검토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승려사 주지 경환 스님은 "뒷산으로 포행을 나갔다가 이상한 표식이 있어 한전 전주사업소로 찾아가 노선 변경의 불가피함을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승려사를 중심으로 남원시암연합회,

남원 신행단체 연합회, 마을주민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진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전선 첩탑이 세워질 예정인 만행산은 지난 1996년 4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승려사 주변을 제외한 산림이 황폐화돼 있는 상태. 때문에 만행산에는 계곡으로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심각한 식수 고갈문제로 현재도 계곡의 물을 끌어올려 식수를 해결하고 갈수기에는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첩탑건설이 착수된다면, 식수문제와 산림파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환 스님은 "산불피해로 황폐화된 곳을 놓아두고 화재로부터 겨우 살아남은 승려사 주변의 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승려사 뒷산으로 고압선로를 개설하려는 한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절 바로 뒤에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정작 승려사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승려사는 선학원 소속으로 백두대간을 마주하고 있는 남원의 종조산인 만행산 자락에 위치해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부니혼자
남원 선원사 '자장면 스님' 운천 스님

모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지리산과 만행산, 교통산 등 명산이 어우러져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성춘향의 고장 전라북도 남원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선원사. 전북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 경남지역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한 남원의 중심에서 전법도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을 찾았다.

선원사에 부임한지 1년 정도 지난 운천 스님은 파계사 율원과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중국 의장사범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운천 스님은 남원지역에서 '자장면 스님'으로 더욱 유명하다. 스님의 별명은 모르더라도 자장면 스님하면 인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운천 스님이 자장면 스님으로 불리게 된 것은 현재 선원사 자원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인순 거사를 만나면서부터다.

운천 스님은 대안 기름제거 작업 봉사자들에게 자장면 보시를 했던 최인순 거사와 신도들과 함께 선원사 자원봉사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스님이 직접 면 뽑는 기계를 구입해 안거 기간 매주 수요일 마다 화일사, 범어사, 쌍계사, 칠불선원, 해인사, 통도사 등 전국의 총림, 강원, 선원을 찾아 스님들에게 자장면을 만들어 대중공양을 올렸다.

운천 스님은 선원사에 부임하고 요사채인 율화전을 일부 개조해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급식은 일반 경로식당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스님이 직접 만들어 주는 자장면 만큼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중의 하나가 됐다.

스님은 틈틈이 지역의 경로당

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자장면을 공양하면서, 가장행편이 어려운 지역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운천 스님은 "매년 일정금액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 계획"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운천 스님은 군장병들에게도 자장면을 보시해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매월 셋째 일요일마다 입실 제6관 약장 군법당 호국장영사를 찾아 자장면을 보시하던 스님은 2009년 겨울, 열악한 난방시설로 추운 환경에서 병사들을 보며 법회를 보는 장병들을 위해 50명 법당에 전기 난방을 설치해 주기도 했다.

선원 사내에 복지

지관 설립을 서원

했다 운천 스님은 현재 남원시에 복지관 설립 허가요청을 낸 상태다. 스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천운 스님이 꾸준한 자원봉사를 하고 복지관 설립을 서원할 수 있게 한 것은 '설치감자차' '동판차'로 불리는 국유차를 판매하면서 부터다.

스님은 올해 처음으로 신도들과 함께 지리산에 올라 직접 자생 돼지감자를 캐, 씻고 썰고 말리는 힘든 과정을 통해 봉사의 참 맛을 알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미 전국의 선원과 일부 사찰에 돼지감자차를 보시했다는 스님은 "많은 스님들로부터 좋은 반응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급식은 일반 경로식당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스님이 직접 만들어 주는 자장면 만큼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중의 하나가 됐다."

스님은 틈틈이 지역의 경로당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장면 스님으로 더 유명한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

“이런 추모제 되풀이 되지 말아야”

문수스님 49재
봉행 추모물결

소신공양으로 생명의 등불을 밝힌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물결이 전국에 이어졌다.

소신공양 문수 스님 49재 추모제가 열린 광주에서 참가자들은 "홍수문제는 영산강 분류가 아닌 지천과 산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강바닥을 들이내고 보를 만들고 있다"며 "흐르는 물길을 가로막는 댐을 만들고, 강바닥을 수미터 굴착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강을 인공호수로 만드는 사업이 바로 MB식 영산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문수스님유지실천위원회와 영산



광주 문법사 주지 법선 스님이 7월 17일 열린 '소신공양 문수 스님 시민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강지키기 광주전남시도민행동(대표 임낙평)은 7월 17일 광주 무등산 문법사(주지 법선)에서 '소신공양 문수스님 시민 추모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법선 스님,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 김병균 목사, 임낙평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200여 종교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수 스님이 남긴 말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현지 스님은 추모사에서 "4대강과 가난한 자들을 대변한 문수 스님을 보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문수 스님의 뜻을 이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7월 17일 부산 서면 태화백화점 일대에서는 '문수 스님 소신공양 부산시민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추모제에는 부산시민 400여 명이 동참했다. 문수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와 시민추모문화제를 비롯해 서명운동, 사진전, 도서전, 모금운동 등이 진행됐다.

이어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하재훈 회장은 "다시는 이런 추모제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재진 부산지사장

성공과 건강을 돌려주는 우주의 대기운!
빙의치유의 정석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 직장인, 자영업자, 종교인, 학생, 가정주부, 사업가, 군인, 연예인, 교포 등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

아파도 외로워도 혼자만이 감수하던 빙의의 치료와 구원의 결정판! 빙의시대에 등불이 되어줄 명쾌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최초로 선회도를 통하여 대우주의기를 받는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기 수록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을 포기한 이시대의 냉가슴을 후련하게 달래주는 성공치유의 선회도와 빙의진단요령, 성공을 이끄는 우주의 대기운!

이 책은 오랜동안 빙의, 우울증, 신병, 병명, 나타나는 않는분, 불치병등 고질병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기 전에 찾아온 연구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서술한 생생한 체험기이다.

특히 저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설악산 금강굴 안의 쫓대 4개 모두에서 촛불서광을 받은후 20년간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온갖 고행을 하게 된다.

37세에 드디어 받은 대우주의 기로 인해 하늘문이 열려 신비의 나라와 소통하게되는 신비한 능력 때문에 운명의 이정표가 완전 달라지게 된다. 금메달을 향하는 선수에게 모진 훈련이 기다리듯 저자 역시 무지 힘든 역경과 시련의 시험대에서 대우주의 기운과 선회도의 대기운을 아꼈어 틀어에게 한사람이라도 소중히 나누어 주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화합하려는 대우주의 기운으로 온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써온 저자의 변함없는 진실함을 기다리다 기적같은 환희를 체험한 회원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못이겨 드디어 책

을 저술하게 된 저자는 이땅에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떨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까지 "진실의 힘"을 많이 접하기를 바라고 있다.

총 5장으로 나누어진 본서의 특징은 일반인들이 흔히 잘모르지만 실생활에는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많이 저술되어 있으며 골반 잘 집어넣는 운동선수로 비유한다면 왜 골을 잘 집어넣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골도 잘넣고 골이 잘넣어지면 주변동료들과관객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확실하게 정돈해 놓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물질명만 앞서고 정신명만 뒤박에 질 수록 높아만 가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안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한 줄기 등대같은 이 책이아말로 빙의분야에 새로운 정석으로 다가가는 최상의 필독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2010년 한국현대인물열전 33인에 선정되었다.

선회도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기를 구형하고 병을 치유시키고 고통을 덜어주고 악함을 없애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사람처럼 울 수 없으므로 그림으로 나타나는 분입니다. 실제 선회도를 영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회도는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그려진 적이 없으며 세계최초로 우리 인간 세상에 그려지며 10초만 그려집니다. 선회도는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며 대우주를 관장하는 천상의 세계에서 오신 실존 인물입니다. 선회도를 한번 그릴 때마다 대우주를 관장하는 곳에서 선회님들이 지상으로 내려오 십니다.

선회도는 배워서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고 절대능력을 받아서 그려지는 신비한 그림으로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는 동시에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헤아리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어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액운을 막아주며 우환을 없애주시기도 합니다. 선회도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지며 10초만 그려집니다. 선회도가 다르게 그려지는 이유는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선회님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회님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존의 모든 가치관과 이념을 초월 선의 힘으로 하나되게 하여 힘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선회도를 소장한 분들이 체험한 사례들

- ◇몸에서 열기를 느낀다.
- ◇눈에 어떤 형상이 보인다.
-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졌다.
- ◇온몸에 전율이 느껴진다.
- ◇사업이 번창해졌다.
-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 ◇평소 불안한것이 사라졌다.
- ◇액운이 막아졌다.
- ◇가정불화가 사라졌다.
- ◇마음이 편해지며 기분이 좋다.
-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 ◇때로는 환희심이 일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 ◇들꽃이나 박하 향기, 은은한 향배를 맡았다.
- ◇선회도를 보고 슬퍼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몸과 마음을 씻어준다.
- ◇되는 일이 없었는데 선회도를 소장하고부터 일이 잘풀렸다.
- ◇선회도에서 방출되는 대우주의기를 받아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았다.